

2019 제1차 임시이사회

회 의 록

「충남연구원」 2019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① 회 의 개 요

1. 일 시 : 2019. 4. 24(수), 14:00~15:00

2. 장 소 :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

3. 참 석 : 총 13명(이사 12, 감사 1)

- 불 참(6명) : 김영만, 김황배, 송준호, 이수훈, 홍성주, 하승수

4. 부의안건 상정 및 심의의결

- 제1항 연구원 현황 및 2019년 운영구상보고
- 제2항 연구원 청사 증축보고
- 제3항 직제규정개정(안)

5. 진행흐름



② 회 의 결 과

□ 개 회(간사)

[국민의례, 성원보고]

□ 개회선언(이사장)

- 성원이 되었음으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 2019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사장 인사말씀

-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을 위한 지혜의 산실 충남연구원 제9기 이사회의 새로운 시작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깊은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충청남도과 시·군정 발전을 위해서 이번 위촉·추앙된 여러분께 충남도민과 더불어서 존경과 감사 인사드립니다.
-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의 썩크탱크로서 시정, 군정, 도정의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충남연구원입니다.
- 충남연구원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 밀받침하시고 항시 선도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는 것이 이사님과 감사님의 역할입니다.
- 그런 의미에서 잘 부탁드립니다.
- 여러 이사님, 감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 대한민국 수출액이 6,048억 달러 입니다. 세계 6위권입니다.

- 교역액이 1조 달러를 2년 연속 돌파했습니다.
 - 교역액이 1조 달러를 넘는 나라가 200개 국가 중 경험한 나라까지 따져 봐도, 10여개 국가정도 있습니다.
 - 그 만큼 대단한 위상을 차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 1인당 GNP가 2018년 말 3만 달러를 돌파했고, 총 GDP는 1조 6천억 달러로 세계 10위권이 되었습니다.
 - 엄청난 경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한 대한민국이지만,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 이것이 충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충남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미래도 감히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내적 위기상황에 도달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충청남도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의 도사리고 있는 위기는 3가지로, 저는 규정합니다.
- 우선, 사회양극화의 위기입니다.
- 사회양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사회적 통합,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 실질적으로 2017년도 정부조사에 의하면 전 국민 65%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의 사회적 경제상승, 신분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했다.”라고, 통계청의 발표 결과였습니다.
- 더구나 여건이 되면 “이민을 가고 싶다.”라고 답변한 것이 약 70%정도 나 됩니다.
 - 하위 20%의 2018년도 가계소득이 123만원에 불과했습니다.
 - 여러 가지 사회양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회통합도 어렵고, 지속 가능한 발전도 어렵습니다.

- 어느 정상적인 국가에서 “여건이 허락되면 이민을 가고 싶다.”라는 비율이 70%를 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지도자, 행정지도자, 교육지도자, 종교지도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근본적인 반성을 하고,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체의 토대가 흔들리는 이런 심각한 지경에 빠지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 양극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령화 문제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고령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지난 2018년 말에 771만을 돌파했습니다. 약 14.9%입니다.
 - 이것은 시작입니다. 2025년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노인인구가 1천만명 돌파하면서 20%가 넘는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 2067년의 통계로 보면 노인인구가 대략 46.5%가 되는 것이 대한민국통계이고, 세계제일의 고령화 대국으로 발돋움합니다.
- 노령화로 인한 노인빈곤률, 노인자살률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저 출산 문제에 대해선, 2018년도 합계출산율이 0.98명이었습니다.
 - 2018년 19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어느 한 나라도 합계출산율 1 이하도 없는데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98명입니다.
 - 1971년 102만명, 2000년 63만명, 2018년에 32만 6900명 도저히 이 상태로 저 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고령화, 저 출산 현상입니다.
- 이런 3대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충남의 미래는 없습니다.
- 절박한 심정으로 3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정의 4대 기본목표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 양극화를 해소하고, 고령화에 잘 대처하고, 저 출산을 극복하여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드는 것입니다.

- 도정 4대 기본 목표를 실현하고, 달성하는 것은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적 모델을 마련함으로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충남을 이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 이런 도정의 4대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남연구원이 커다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엔진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여기계신 이사님 감사님 이라고 생각하고, 잘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만 15개시군, 충청남도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3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도적 모델을 마련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 기명이사 선임

- 다음은, 부의안건 심의에 앞서
 - 먼저 회의록 기명이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 이사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이사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 추천이 없으면, 지근에 근무하고 계신 류주현 이사님 어떠십니까?

〈류주현 이사〉

-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장〉

- 박종찬이사님도 지근거리에 근무하고 계셔서, 기명이사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박종찬 이사〉

- 예, 저 또한 하겠습니다.

〈이사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이사장〉

- 이사님 모두가 동의해 주셨으므로, 류주현 이사님과 박종찬 이사님을 2019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기명이사로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두 분 이사님께서서는 회의록 정리에 수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류주현 이사, 박종찬 이사〉

- 알겠습니다.

□ 부의안건 심의의결

〈이사장〉

- 다음은, 간사가 오늘 이사회에서 심의할 부의 안건을 보고하겠습니다.
 - 간사는 보고 해 주기바랍니다.

[간사의 부의안건 보고 후]

- 오늘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은 간사가 보고한 대로
 - 보고의건으로
 - ① 연구원 현황 및 2019년 운영구상 보고
 - ② 충남연구원 증축 , 그리고
 - 심의 의결안건으로
 - ③ 직제규정개정(안)
 -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 먼저, 보고의 건으로
 - 연구원 현황 및 2019년 운영구상보고, 충남연구원 청사 증축 2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보고 해 주기바랍니다.

[간사의 부의안건 보고 후]

-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이사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안건에 대하여 특별히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이사장〉

-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연구원 현황 및 2019년 운영 구상보고, 의사일정 제2항 충남연구원 청사증축에 대한 보고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직제규정개정(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 간사는 제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간사의 제안 설명이 끝난 후]

○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이사〉

○ 사회적 추세에 맞는 직제 개편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사장〉

○ 박종찬 이사님 동의의견 발언해 주셨습니다. 예, 김수민 이사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민 이사〉

○ 각도마다 연구원이 있는데, 인권경영센터를 일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충남연구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 입니까?

〈간 사〉

○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 장〉

-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연구원이 변호사 자격과 동시에 박사학위를 소지하신분이 계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인권경영센터장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 실제 연구와 동시에 인권경영업무를 담당할 분을 모시고, 그 밑에 행정업무를 담당할 인원을 2~3명을 두고, 실질적으로 인권경영을 우리연구원에서 수행을 함으로서 타 재단이나, 기관에서 볼 수 없는 선도적 모델로서 해 볼려고 합니다.
- 이번에 직제를 개편해서 우리연구원이 인권경영센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사회에 안전을 부의한 것입니다.

〈이사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정문 이사〉

- 처음으로 위촉 받은 날 안전도 있고, 조금 난감합니다.
- 몇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안전과 의결안전이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인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번 임시이사회에서 이 내용을 심의 하는데, 정기이사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종합적으로 진행 됐을 것 같습니다.
- 지난 이사회 회의록을 참조했으면, 전 과정에서 의견을 드렸을 텐데 아쉬움이 조금 듭니다.
- 내포의 지속가능한 발전 측면으로 볼 때, 충남연구원의 공간적 혹은 접근성 문제들이 오래 전부터 거론 된 문제입니다.

- 증축에 대한 고민을 보니, 공주지역 안에서의 증축에 따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접근성, 도민들로 하여금 현장 공감대 형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연관해서 부속센터들이 워낙 많고, 충남의 센터들이 확대 되어서 통합적 운영의 문제등이 있습니다.
- 일부는 센터들이 전반적으로 센터의 기능에 맞게끔 현장 속에서 도민 및 도정과의 협업등, 각각의 위치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런 연장선에서 증축의 문제를 같이 고려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인권경영센터의 개념 관련해서 보통의 기관들이 센터이름으로 많이 설정합니다.
- 내부의 독립센터 혹은 자체의 위원회라든가 인권관련해서 첫 시작으로 도정도 많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들을 감안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 전제는 사전내용 관련해서 많이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장〉

- 이정문이사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이사님 선임기간 전이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사회회 안전을 이사님들이 오시기 전에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회의에 들어오는 것이 맞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맞죠!
- 다음부터는 이사님들 이사회 회의 오기 며칠 전에 안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연구원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증축건 문제는 심의안전이 아니라 보고안전 이죠?

〈간사〉

○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

○ 보고안건을 숙지하셨다가 나중에 심의안건으로 되면, 이사님들이 심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인권경영센터는 특별하게 증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원 장〉

○ 예, 그렇습니다.

〈이사장〉

○ 연구원 내부의 부설센터로 두겠다는 말씀이시죠!

〈원 장〉

○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원장 직속 하에 있습니다. 인권경영센터도 이것과 대칭해서 원장직속기관으로서 양립해서 원장직 할로 두려고 합니다.

○ 예산 범위 및 인원 충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이사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센터장과 관리 2~3명의 팀원을 충원 하려고 합니다.

○ 충원을 따로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자체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우리연구원이 계획을 했습니다.

〈박종찬 이사〉

- 우리 대학도 지난번 염총장님 밑에 학생들 인권침해문제라든가, 중요한 이슈가 대두되어서 고려대학교 인권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수 한분이 센터장을 책임지시고 직원들이 속해있어서 상담 및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세은 이사〉

-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실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동안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소홀히 해온 것 같습니다. 충남연구원에서 먼저 성공적으로 성과를 거둔다면 모범사례가 될 것이고,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 센터장으로 모실 때 “변호사 자격도 있고, 박사학위도 있는 분!”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겸비 하신 분을 모시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사장〉

- 모시는 것은 별도 추후에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이사님이 안 계시면 심의를 마치고 ,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이사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직제규정 개정(안)은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 종합토론

〈이사장〉

-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 다음은, 충남연구원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연구원 발전을 위하여 이사님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지진호 이사〉

- 발표 중에 KDI같은 경우 대학원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충남연구원
에서도 그 기능을 살려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쪽도 좋은 방
법인 것 같습니다.
- 그것이 가능합니까?

〈원 장〉

- KDI같은 경우는 대학원, 대학교의 교육기능 및 연구원 본래의 연구 기능
이 있습니다.
- 연구원이 대학교수 요원으로 되어서, 연구와 교육이 같이 가는 시스템인
데, 우선 공간적인 차원에서 정한 모델이지 “충남연구원이 교육기능을
만들어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진호 이사〉

○ 불가능 한 것입니까?

〈원 장〉

○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연구원이 공간 확보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 공주교대와 함께 공간이 확보되면 교육기능 및 연구기능을 하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박정배 이사〉

- 저는 증축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차피 만드는 것이 확정됐다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싱크탱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 충남연구원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 그래야지, 누가 보더라도 싱크탱크로서 연구원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 같습니다.
- 또한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다.”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보여 지는 것보다도 좀 더 세련되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그 다음 연구 관련해서 건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청이 내포에 있습니다.
- 우리학교가 내포신도시에 위치해 있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활력이 기대한 것 보다, 활활 타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현실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 지사님이 추진을 해서 연구가 중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실행으로 제시되어 문화적으로 떠들썩한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도청위치에 있는 도심이 우선 활력이 넘치는 쪽으로 보여 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문화·아트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 연구에 대한 성과를 충남연구원이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사장〉

- 우선 증축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연구원은 도청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내포로 이전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인 면에서 맞습니다.
 - 도의 싱크탱크역할이기 때문에 도청 옆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 하지만 현재 공주시가 세종시로의 진출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내지, 소외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공주시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공주시에 있던 충남연구원이 이전하면 공주시민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 천안,아산중심으로 RND집적센터가 천안·아산역 근처에 생길 예정입니다.
- 연구기능의 총본산으로서 충남연구원이야 말로 중앙정부의 RND집적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하는 것이 충남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
- 또한 “천안·아산에 있는 부근에 이전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외부적으로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것을 의제로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증축의 필요성은

개인적으로 충남도청에서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 장소, 문제가 따르는데 전단계로서 연구원의 연구하시는 분들의 사무실 공간이 정말 열악합니다.
- 210만 도민을 위한 연구원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 전반적으로 증축 혹은 신축으로 할 것인가, 다른 방안을 찾을 것 인지가 고민입니다.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수민 이사〉

- 중장기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중장기는 어느 정도의 기간입니까?

〈원장〉

- 사실상 증축 공간을 확보하는데 당장 단기적으로 증축을 해서 공간환경을 어떻게든 넓혀, 빨리 연구 환경으로 전환하여 시작하는 것이 보고의 내용입니다.
-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아산으로 신축하는 문제, 부지제공 문제가 거론됐고, 청양에서도 지역 내 균형발전차원에서 도립대와 연구원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부지를 제공할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 이 문제로 공주시 시장님을 일전에 만났습니다. 천안, 아산, 청양, 내포 신도시의 후보지로 사실상 옮겨야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당신들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 공주시장님은 결사반대 했습니다. 반발이 심했습니다.
- 그렇다면 증축밖에 없어서, 현재 상태에서 “전후좌우로 공간이 나와 있는 부분을 현재 공간과 연결시켜서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원래는 사실상 리모델링으로 해서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면서 확장을 해볼까!” 생각해 봤습니다만, 결국은 그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 현재 상태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단기적으로 가건물을 해서라도 저희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연구원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2~3년 안에 이사님들의 임기 안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중장기적으로 3년 이후에는 “신축이 됐든! 아니면 새로운 어느 지역을 가든!” 다음에 하려고, 우리연구원이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이사장〉

- 그 문제는 사무실 공간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있습니다. 이전 신축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어서, 다음에 심의를 해보시죠!

〈원장〉

- 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문정우 이사〉

- 청사이전 문제는 심사숙고 해 주셔야 합니다. “공주도 그렇고! 금산군도 그렇고!” 시·군이 굉장히 소외 되어 있습니다.
- 공주시도 세종시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금산군도 도 단위기관 하나 없이 굉장히 소외 되어 있다고 생각 드는데, 우리 충남이 천안·아산중심으로 계속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 남부지방 시군들은 눈으로 보일정도로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 지사님이 전에 말씀 하실 때 균형발전을 많이 강조 했는데, 어떤 것이 균형발전인지 모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공주시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하나가 빠져나가는 것이 상당히 타격이 큼니다.
- 내포가 발전되는 것도 좋지만, 기존시군에 있던 기관을 뺏어가면서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우리지역은 아니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증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

- 문정우 이사님의 의견에 저 또한 동의합니다.
- 이정문 이사님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이정문 이사〉

- 제가 하는 일이 변호사입니다.
- 인권경영센터를 만드는 것이 시기적절하고, 충남도가 선도하는데 아주 의미가 큼니다. “직제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좋은 분을 모시려 하고 있고, 많이 응모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범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이사장〉

-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회 안전관련은 아니지만 내포로 도청이 옮겨가고 10만도시를 처음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 하지만 2만 4천명 정도이고 유동인구까지 3만명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도청 자체는 있지만, 어떤 도청으로서의 내포 신도시의 기능자체는 안되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 예를들어, 대도시권 내의 도청에 다른 기관이 집적되는 문제가 아니고, 도청 소재하는 도시로서의 기능역할이 아직도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실제로 107개 공공기관에서 96개가 이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오는 것만 으로는 도저히 내포신도시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는데 충남연구원 이사님들, 저도 이사장 역할을 하지만, 연구원이 다만 “장식적 기능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연구원이 씽크탱크 역할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 현안문제를 단기적과제, 중기적과제, 장기적과제로 해서 충남이 가야될 방향을 결정 해 주고, 시군이 가야될 방향을 결정 해주고, 목표지점을 설정해 주는 역할이 충남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 도청은 현업부서가 있고 집행부서가 있습니다. 항상 집행 기능을 하는데에만 급급합니다. “충남의 미래!”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지점을 설정해주는 것이 충남연구원의 역할입니다.
- 우리 이사님들이 현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연구원이 잘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투자 해주십시오!”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습니다.

○ 마지막으로, 더 의견 있으신 이사님 계십니까?

〈이사전원〉


○ 없습니다.

☐ 폐회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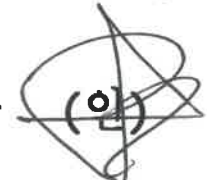
○ 이상으로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의 2019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의사봉 3타)

□ 회의록 작성 날인

- 충남연구원 2019 제1차 임시이사회(2019. 4. 24)의 진행 및 의결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서명이사, 감사가 각각 기명날인하여 이를 증명 함.

이 사 장 양 승 조 (인) 

이 사 류 주 현 (인) 

이 사 박 종 찬 (인) 

감 사 하 승 수 (인) 불참

감 사 이 필 영 (인) 